

일진반도체, LED 광효율 최고 수준

와트당 120루멘급 패키지 개발 성공 ... 에너지절약 효과 및 밝기 향상

일진반도체가 국내 최고 수준의 LED(Light Emitting Diode) 패키지 개발에 성공했다.

LED 소자 생산기업 일진반도체는 국내 최고 수준인 w(와트)당 120lm(루멘)급 LED 패키지를 개발했다고 1월13일 발표했다.

신제품은 기존의 조명에 비해 광효율이 20% 정도 개선돼 에너지절약 효과와 밝기가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.

일진반도체는 LED 조명 신제품이 사무실, 사업장, 실내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일진반도체 김하철 대표는 “공공기관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120lm급 LED를 개발하기 위해 1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”며 “시장 선점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13>